

섬세한 감식안으로 골라낸 세계 문학사의 감춰진 보석

# 열림원의 '이삭줍기 세계문학'

세계문학전집하면 언뜻 떠오르는 작가와 작품들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작가와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제대로 읽어 본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이 고전'이라는 혹자의 말처럼 고전의 가치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서가를 채우는 명목상의 가치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전집이나 그 목록이 갖춘 구색은 천편일률적이다.



려나 있었지만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의 영향력 측면에서 재평가 되어야 마땅한 작품들을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이삭줍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이름에 얽힌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이삭줍기'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지금까지 출간된 18권의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 기획위원의 감식안으로 골라낸 작품들이 세계 문학사의 감춰진 보석 찾기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윌리엄 포크너와 함께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작가인 카슨 매컬러스의 《슬픈 카페의 노래》나 환상문학의 선구자인 프랑스 작가 카조트의 《사랑에 빠진 악마》,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한 탐미주의의 선구자 테오필 고티에의 《모팽 양》 등은 '세계문학전집' 하면 관성의 범칙처럼 떠오르는 작가나 작품에 질린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 세계 문학·사상의 아웃사이드들을 이삭 줍는 마음으로...

모두 고만고만한 세계문학전집 중 열림원의 '이삭줍기 세계문학(이하 이삭줍기)' 시리즈는 그래서 더욱 오롯하게 빛난다. 2002년 시리즈의 첫 책에 해당하는 야모스 투투올라의 《야자열매술꾼》부터 최근 18번째로 출간된 테오필 고티에의 《모팽 양》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새롭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김석희 씨, 서울대 영문과의 장경렬 교수, 서울대 철학과의 허남진 교수를 편집 기획위원으로 '세계 문학, 사상의 아웃사이드들을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둔 특별한 세계문학전집이기 때문이다.

김석희 기획위원은 "문학사, 사상사에서 비주류로 밀

## 기획위원들 '서로 부족한 점 일깨우고 보충'

세 기획위원들이 모두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인 만큼 그들이 추천하는 '이삭'들을 소개받는 재미는 어떤 문학전집도 가질 수 없는 '이삭줍기'만의 개성을 담보한다. 번역가로, 영문학자로, 철학자로 각 기획위원의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 작품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된 적도 있을 법한데 장경렬 기획위원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김석희 씨는 번역을 많이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좋은 대륙 쪽 작품들을 소개하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허남진 교수는 주로 철학 사상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합니다. 반면 저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유심히 보아 두었던 영미 쪽 작품들을 추천하는 식이니까 서로의 의견이 부딪힌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서로가 일깨워주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니까 든든하지요.”

### 대부분의 작품 국내 최초 번역... 진지한 번역 고민

‘이삭줍기’ 시리즈는 2002년 출간을 시작하면서 ‘한국 백상출판문화상’을 받는 등 새로운 기획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판매에서 만큼은 기획자와 편집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전집류의 출간 속도를 감안할 때 2002년 1권이 출간되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 18권인 것만 봐도 ‘이삭줍기’의 속도는 느린 편이다. 애초 캐논류의 문학전집을 출간하지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싸늘한 시장 반응에 실망스러웠다는 김 기획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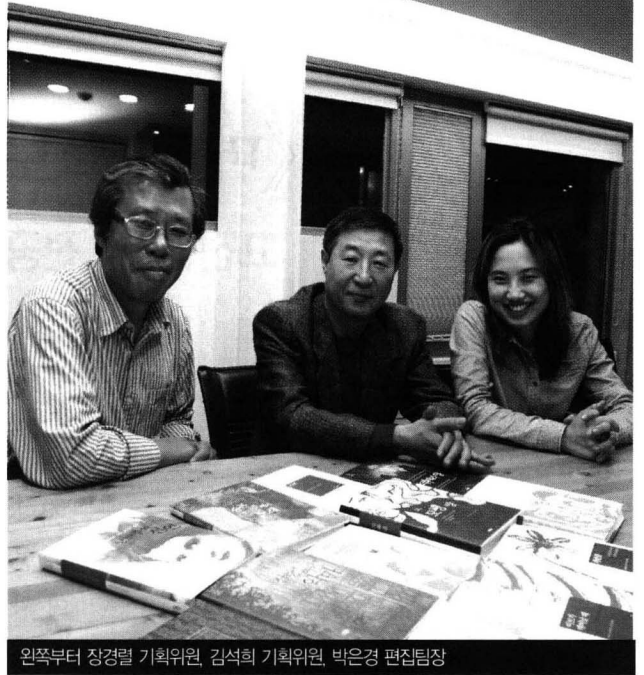
“문학전집이라고 하면서 출간되는 비슷비슷한 전집과는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문학적 완성도나 읽는 재미에 있어서는 소위 캐논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자부하는 작품들인데 너무 반응이 없으니 ‘이런 책도 안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애써서 좋은 책이라고 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중간에 추진력을 잃어서 휴지기가 좀 있었지요.”

### 처음 문고판에서 하드커버로...

#### ‘독자 고려 고심 끝 변신’

그러나 “고정관념에 얽매이거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풍성한 책의 잔칫상을 차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이삭줍기 시리즈는 그 독특한 개성의 빛을 잃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박은경 편집팀장은 처음에 문고판이었던 ‘이삭줍기’가 12권 카슨 매컬러스의 《슬픈 카페의 노래》부터 하드커버로 바뀐 것도 독자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변신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작품이 국내 최초 번역인지라 번역자를 선정



왼쪽부터 장경렬 기획위원, 김석희 기획위원, 박은경 편집팀장

하는 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18권을 출간하기까지 번역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진 못했다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번역가 김석희 씨와 문학평론가이자 영문학자인 장경렬 교수, 두 기획위원의 섬세한 감식안을 만족시키는 번역문이 일반인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당연할 터. 장 기획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두 달에 한 번씩 기획회의를 하면서 일의 진행 상황도 얘기하고 서로 새롭게 주는 ‘이삭’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어떤 번역자가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기존에 번역된 책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역자를 찾기도 합니다. 번역의 유려함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번역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자에게 다시 한번 번역을 부탁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번역된 작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40권 더해 ‘100권 출간’ 목표

‘이삭줍기’ 시리즈는 100권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출간이 준비된 목록은 60여 권이지만 나머지 40권을 더하여 100권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라고. 짧은 시간에 완성될 전집이 아니기에 한 권, 한 권의 출간이 더욱 기다려지는 시리즈가 될 것 같다.

“좋은 책을 독자들이 찾아서 읽어주고, 번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는 김 기획위원의 말처럼 ‘이삭줍기’ 시리즈가 문학전집의 지평을 넓히고, 번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진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취재\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